

## 회원종목단체 총 8개 기업 선정 오늘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

올해 장애인체육 부문 신설...2개 기업 포함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임피리얼펠

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회원종목단체 재정 자립에 기여한 기업 중 회장사 부문 3개 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후원사 부문 5개 기업(대한체육회장 표창) 등 총 8개 기업이 수상한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체육 부문이 신설됐다. 총 8개 기업 중 비장애인 체육단체 후원 부문 6개 기업, 장애인 체육단체 후원 부문 2개 기업이 선정됐다.

회장사 부문 수상 기업은 ▲롯데그룹(대한스키협회) ▲SK텔레콤(대한펜싱협회) ▲창성그룹(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이며, 후원사 부문 수상 기업은 ▲이베스트투자증권(대한당구연맹) ▲LG(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영원아웃도어(대한산악연맹) ▲대상트코리아주식회사(대한스키협회, 대한육상연맹) ▲충동스포츠(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 회원종목단체 후원기업의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종목 저변 확대 기여도 등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상 기업들을 선정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기업의 스포츠메세나 공헌 활동은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기업들의 스포츠메세나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PGA 이벤트 대회 'QBE 숏아웃'에 출전하는 유일한 여성골퍼

# 비거리 255m 톰슨 남자골퍼와 샷대결

톰슨, 5번째 도전...샷스와 함께 출전  
2017년 피나우와 공동 4위 최고 성적  
한국선수 이경훈이 스테디캐러와 한팀



LPGA 투어에서 남다른 비거리를 자랑하는 '장타 여왕' 렉시 톰슨(미국)이 10일(한국시간) 개막하는 PGA 투어 이벤트 대회 QBE 숏아웃에 출전해 경쟁한 남자 선수들과 샷 대결을 펼친다. AP뉴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11승을 수확한 렉시 톰슨(26·미국)은 소문난 '장타 여왕'이다. 2012년 투어에 데뷔한 뒤 올해까지 10시즌 연속 드라이버 비거리 톱5에 이름을 올렸다. 2021시즌 평균 비거리는 255m로 4위에 랭크됐다.

골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리'에서 남자 선수들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는 덕분에 종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모습을 드러냈던 톰슨이 이번에도 '샷대결'을 펼친다.

톰슨은 10일(한국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리는 PGA 투어 이벤트 대회 QBE 숏아웃(총상금 360만 달러·42억5000만 원)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선수 2명이 한 팀을 이뤄 총 12개 팀이 우승 상금 89만5000달러(10억5000만 원)를 놓고 다툰다. 톰슨은 바바 왓슨(미국)과 한 팀을 이뤄 출전한다.

톰슨의 이 대회 출전은 올해로 5번째,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나선 뒤 지난해 대회를 건너뛰고 올해 5번째로 샷대결에 출전하는 '유일한' 여자 선수다. 톰슨이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2016년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던 브라이슨 디샴보(미국)는 당시 "나보다 떨어지는 부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자랑한다"고 극찬한 바 있다. 톰슨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토니 피나우(미국)와 한 팀을 이뤘는데 2017년 공동 4위로 성적이 제일 좋았다. 2018년엔 7위였다. 선 오헤어(미국)와 짝을 이룬 2019년에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QBE 숏아웃은 독특한 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1라운드엔 스크램블 방식으로 2명의 선수가 각자 티샷한 뒤 더 좋은 지점에

떨어진 공을 택하고, 2명 모두 해당 지점에서 플레이한다. 2라운드는 변형 포섭 방식으로 같은 팀 2명이 모두 티샷한 뒤 더 좋은 공을 골라 이후로는 그 공을 2명이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최종 3라운드는 선수들이 각자 공으로 플레이해 둘 중 더 좋은 스코어를 팀 점수로 삼는 포블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이경훈(30)이 출전한다. 이경훈은 브랜트 스테디캐러(미국)와 짝을 이뤘다. 지난해 챔피언 2번 커처-헤리스 잉글리시(이상 미국)는 2연패에 도전한다. 김도현 기자 dhoney@donga.com

## KPGA, 내년 총상금 10억 '아시아드CC 부산 마스터즈' 신설

KPGA-아시아드CC 조인식 개최  
구자철 회장 "대회에 만반의 준비"

2022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대회가 신설된다.

KPGA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3월 부산 기장군 소재 아시아드CC에서 코리아투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이사, KPGA 구자

철 회장, 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2시즌 신설 대회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는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3억 원 규모로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아시아드CC이고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시아드CC에서 KPGA 코리아투어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도형 아시아드CC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가 투어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국내 최고의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PGA 구자철 회장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개최를 위해 조성된 아시아드CC는 2019년과 2021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열며 'LPGA 인터내셔널 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개최 조인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사 왼쪽)와 KPGA 구자철 회장. 사진제공 | KPGA

산'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올 12월에 다시 아시아드CC로 이름을 바꿨고 2022년 개장 20주년을 맞이한다. 김도현 기자

###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딥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정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구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인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자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리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면 하연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전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를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활성화 기능), 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터폰 사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용)      **농협 : 511-12-185903**  
보급형                      (예금주 : 고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 음성증폭기, 작은 소리도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한 사람에 답답함 해소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종합물산(구입문의 : 080-232-5866)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아형 음성증폭기'가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답답했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가 선명하게 들려주는 사람들에 인기 끌고 있다. 특히 고하나 대강당, 넓은 공간 등에서 강의, 세미나, 수업, 설교 등을 들으려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증폭시켜 준다. 대화할 때 큰 볼륨을 들었던 김모(65)씨는 "일상 대화나 TV시청 볼륨 강도 조절 등에서 설교 시기가 설계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특정 음역대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쪽 귀에만 끼어 들을 수 있고 양쪽 귀에도 끼어 들을 수 있다. 또한 2시간 정도의 충전

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너비가 1.5센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수백만원이 넘는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잠을 등기 거의 적어 국내 생산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화할 때 큰 볼륨을 들었던 김모(65)씨는 "일상 대화나 TV시청 볼륨 강도 조절 등에서 설교 시기가 설계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특정 음역대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쪽 귀에만 끼어 들을 수 있고 양쪽 귀에도 끼어 들을 수 있다. 또한 2시간 정도의 충전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목초수액 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흉칙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사용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草)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숯 굽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축내부의 액기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 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에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땀,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배출되는 것이 밤 건강요법 전문가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 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오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밝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은 지극히가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 수험생, 식료품 노인들이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계발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평석)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

### 연료절감기 효과 없으면 "100% 아닌 110% 환불"

자동차 잘나가고 연비 향상  
블랙박스 상시 주차시에도 배터리 방전 방지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량 등 시가책에 꽂기만 하면 돼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절감기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워세이버'가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의 연료절감의 숨은 비밀은 배터리에 있다. 배터리는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충전 전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극반에 축적되어 있던 황산염이 충전시에 극반에 축적되면 배터리의 충전능력이 감소한다. 이 제품은 펄스신호로 극반에 달라붙어 있던 황산염을 분자레벨로 분해해 배터리의 성능을 2배이상 향상시켜 연료를 절감하게 되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는 모든 전자장치와 모터 그리고 정화플러그에 전기에너지의 공급하는데 많이 나빠진 배터리는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정화플러그가 나쁘면 고속주행 시 연료를 5~10% 더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제품의 원리는 배터리를 재생, 복원하여 연료를 절감하게 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기능은 자동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고 엔진소음도 조용해지며 주행속도에 따라 연비도 좋아진다. 특히 제조회사에 따라

면 10~20%의 연비가 향상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제품은 블랙박스를 켜 놓은 상태인 상시 주차에도 7일 후 시동을 걸면 시동이 잘라 배터리 방전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갖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휘발유, 경유, LPG 차량 등 모든 차량의 시가책에 꽂기만 해도 쉽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2012년 투하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그 동작 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으며 공인기관에서 공인 받은 연료절감기로서의 성능을 2배이상 향상시켜 연료를 절감하게 되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제품을 반신반의 하려 구입해 사용했던 경북 영천의 박 모씨는 "신기할 정도로 원도 좋아지고 차량 소음도 줄었다"며 "가스충전을 기뻐했을 때 400Km도 운행할 땐었는데 지금은 500Km는 거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품은 지난 2016년 6월에 대법원에서 '실리불속행기'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즉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이에 대해 소송하여 연료절감기 배터리를 재생 및 복원기술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